

오리온 용암수 오프라인 판매허용 논란

도-(주)오리온, 생산 지원·사회공헌 상생협약
“도, ‘공수화 원칙’ 포기 했나” 비판 목소리 나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오리온과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제주용암수의 오프라인 판매를 허용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제주도가 스스로 ‘공수화 원칙’을 깨버렸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지난 22일 (주)오리온제주용암수(이하 오리온)와 제주지역 사회공헌 등을 약속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협약에는 제주도가 용암해수의 원활한 공급 등 오리온의 안정적 생산활동을 지원하고, 오리온에서는 지역인재 우선 고용, 판매순이익 20

% 사회공헌기금 적립, 지역특산품 해외 판로개척 등에 적극 협력키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판매순이익 중 20%의 기금(매년 최소 5억원 이상)을 적립해 지역사회공헌기금사업으로 투자하도록 명시했다.

또 1년 단위로 체결되는 용수공급계약은 기존 일일생산량 300t에서 200t으로 제한했다. 다만 오프라인 판매 및 가정배달과 B2B 등의 판매 방법은 모두 허용하도록 조정했다.

일일 판매량 200t(연간 7만3000t)은 지난해 기준 전체 생수시장의

1.6% 내외다. 도는 이러한 수치가 기존 유사제품인 생수시장에 끼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상생협약과 공급계약을 계기로 새로운 용암해수 음료 시장을 개척하는 기업에게는 최근의 어려운 시기에 경영을 정상화 시킬 수 있는 활로를 제공하고, 장기적으로는 국내 판매물량을 적정선에서 제한해 서로 간에 상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제주도의 공수화 정책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또 도가 오리온의 해외수출 물량은 제한을 두지 않고, 국내 시장마저 판매를 모두 허용하면서 제주삼다수와의 생수

시장 경쟁도 불가피해졌다.

제주도는 제주 최대 공공자원인 지하수의 민간기업 제조·판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제주도지사가 지정·고시한 지역’에 한해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오리온 생수 공장이 입지한 구좌읍 제주용암해수일반산업단지가 예외 구역이다.

한편 (주)오리온은 제주도와와 상생협약에 따라 지난 3월 16일 이후 2개월 이상 운영을 중단했던 공장을 25일부터 다시 가동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존 자사제품을 공급하는 대형할인점과 편의점 5만4000개소, 일반수퍼 1만4000개소를 적극 활용하는 등 경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마케팅 등의 활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태윤기자

■ 기상청 올 여름 제주지역 기상 분석 작년보다 덥고 태풍 2~3개 내습

기온 평년보다 1℃ 안팎 ↑
비 오면 집중호우 내릴 듯

올 여름 제주지역은 평년보다 무더운 날씨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또 태풍 2~3개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제주의 올 여름철 기온은 평년(24.8℃)과 작년(24.6℃)보다 0.5~1.5℃ 높을 것으로 예상됐다.

기상청은 6월부터 7월 중순에는 건조한 공기의 영향으로 낮 기온이 크게 오를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6월 하순에는 흐린 날이 많아 기온 상승 폭이 주춤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 기간 일시적으로 북쪽 찬 공기 영향으로 기온 변화가 클 것으로 예측됐다. 6월 이상 고온 발생일수는 평년(3일)과 비슷하거나 많을 것이라고 기상청은 설명했다.

무더위 절정은 덥고 습한 공기의 영향을 주로 받는 7월 말부터 8월 중순 사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방기상청은 올해 구체적인

폭염·열대야 일수 예상치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지만 평년과 작년보다 잦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계를 살펴보면 제주지역에서는 평년 4.2일의 폭염일수를 기록했으며 지난해에는 2.5일로 평년보다 적었다. 반면 열대야 일수는 평년 24.6일이었지만 지난해에는 27.4일로 더 잦았다. 유난히 더웠던 2018년에는 열대야 일수가 41.0일을 기록했다.

여름철 강수량은 평년(597.3~792.7mm)과 비슷하거나 적은 수준이지만 집중호우 경향은 뚜렷할 것으로 예측됐다. 6월 하순부터 비가 내리는 날이 많고, 7월 하순부터 8월까지의 태풍의 영향과 대기 불안정으로 강한 비가 쏟아지겠다고 기상청은 전했다.

태풍은 평년인 11.1개와 비슷한 9~12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이중 2~3개가 한반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기상청은 설명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올 여름 제주도는 평년보다 덥고, 폭염일수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다혜기자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점포도, 최대 200만원 경제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이력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점포의 재개장을 위해 점포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대상 점포는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점포이며, 재개장에 소요된 공과금·관리비, 재료비, 홍보·마케팅비 등에 대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이뤄진다.

신청 접수는 오는 22일부터 6월 5일까지 2주간이다.

구비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원전정수이행상황신고서, 통장사본(입금계좌) 등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기업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태윤기자



마라도 배길 가로막는 팽생이모자반 23일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산이수동 포구에 팽생이모자반이 밀려와 마라도로 가는 여객선 운항에 큰 불편을 주고 있다.

중국발 팽생이모자반 밀려온다 도, 수거에 총력전… 해경은 예찰강화

제주 해역에 중국발 팽생이모자반이 대거 유입되고 있어 처리난이 예고되고 있다.

2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중국발 팽생이모자반은 지난 13일부터 도내에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했으며, 당분간 지속적으로 유입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연도별 수거실적을 보면 2016년 2441t, 2017년 4407t, 2018년 2150t

, 2019년 860t이 수거됐으며, 올해 들어서도 5월까지 총 735t이 수거됐다.

팽생이모자반은 주로 제주도 해상에서 출현하고 있다. 이에 서귀포항에서 해양환경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청향선 1척을 지난 21일부터 제주도 북서쪽 해상에 투입해 해상수거에 힘을 쏟고 있으며, 다음주쯤 어장정화업체의 선박도 동원할 계획이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 항공단은 항

공예찰을 지원하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함께 도는 팽생이모자반을 퇴비로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도는 팽생이모자반 퇴비 사용을 희망하는 37농가에게 1200t 분량의 퇴비를 보급할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육·해상 수거에 총력을 다해 해안면을 찾는 관광객과 도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겠다”며 “또 수거과정에서 선박 스크류 감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수칙을 철저히 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북한선박 제주해역 통과 다시 허용되나 통일부 “5·24 조치 실효성 상질… 합의시 가능”

정부가 북한 선박의 제주해역 통과 허용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실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통일부는 지난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천안함 사건 이후 5·24 조치의 실효성이 상질됐다”며 “남북이 해상 통신 절차에 합의한다면 북한 선박의 제주 항로 통과는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5·24 조치는 2005년 우리나라 군인 46명의 목숨을 앗아간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이명박 정부가 실시한 독자적인 대북 제재 조치를 말한다.

이 조치 중에는 개성공단 사업을 제외한 남북교역 중단과 함께 제주해협 등 남측 해역에 대한 북한 선박의 운항과 입항 금지 내용 등이 담겨 있다.

그동안 북한은 제주해협을 거쳐 이동하면 운항거리와 운송비를 절감할 수 있어 우리 측에 바닷길을 열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며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북한 선박에 대해 남측 해역 이용을 허용하

는 내용의 남북해운합의서가 만들어졌다.

이 합의를룬 근거로 2005년 8월 남북 분단 이래 처음으로 북한 화물선이 제주해협을 합법적으로 통과했다. 북한 선박들은 주로 물자 운송을 위해 제주 해협을 거쳐 중국 등으로 갔으며 그해 41척을 시작으로 2006년 128척, 2007년 174척, 2008년 188척, 2009년 231척 등 우리 측 해역을 이용하는 북한 선박은 매년 늘었다. 그러다 2005년 3월 천안함 사건으로 그해 5월 24일부터 북한 측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이 금지됐다.

한편 미국 정부는 우리 측의 북한 선박 제주 해역 통과 재개 검토 입장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2일(현지 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 “모든 유엔 회원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해야 한다”며 북한 선박의 제주 해역 통과 재개가 남북 간 합의로 이뤄질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 사랑으로

홍대겸 (구:충석)

父 : 홍현철 (제동종합건설(주) 대표) · 母 : 김유신
제주제일고등학교 졸업 · 한양대 법대 졸업
한양대 대학원 수료 · 전북대학교 로스쿨 졸업(97)

제9회 변호사 시험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삼 목 회
[백원민·허창기·전용권]

취 임

오현고등학교총동창회장

황 용 남
(무릉초등학교 제22회 졸업)

제26대 오현고등학교총동창회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재 제주시 무릉1리 향우회
회 장 강 재 능 외 회원일동

수 상

제38회 대한민국 서예대전 최우수상

양 선 우

제38회 대한민국서예대전 최우수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가 족 일 동
부 : 양성욱 · 모 : 허인희 · 동생 : 양용우

수 상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

성 수 열 L
(본회 재무국장)
(글로벌보습학원장)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국제라이온스협회 354-G(제주)지구 11-12 사 자 회
회 장 이 정 국 외 회원일동